[프랑스의 녹색 중소기업 육성정책]

컨설팅 및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녹색 쇄신 도모

에너지관리환경기관(ADEME)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연구기관에서 전 방위 지원

프랑스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관리환경기관(ADEME)은 지자체, 금융기업, 연구기관, 산업단체, 특허기관, 소비자보호조합 등과의 파트너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그린화에 필요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고 있다 ADEME는 환경관리능력 부족, 기술 및 비용 장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린화 추진이 쉽지 않은 중소업체를 위해 그린화 가능성 조사 외부 용역비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해주며, 정부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도와주는 등 다각적인 실무 지원을 해주어 그린화는 물론,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ADEME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우선 자문지원이 있다. ADEME는 중소기업이 그린화와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 외부 조사용역이 필요할 경우 조사용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사는 기업 건물 에너지 관리 조치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오리엔테이션 자문, 기업 보유 데이터를 기초로 기업현황, 문제점, 우선순위별 개선점 등을 파악하는 사전분석, 기업실태 심층분석을 토대로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및 조직적 해결방법을 비교 · 분석하는 환경관리 분석 및 실현가능성 조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활동 중인 기업지원 전문요원을 통해 환경관리, 폐기물 예방 및 관리, 에너지 관리, 상품 등 운송 최적화에 관해 정보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ADEME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기획도 지원해주고 있다. 투자 방법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기술 지원, 지방 정부나 금융기관과 파트너 십을 통한 직 · 간접 자금지원, 그린화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린화 관련 정부 프로젝트를 소개해주고 특정 프로젝트 참여를 제안하는 미래 설계 지원, 환경 관련 기업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규정적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기술 및 정보지원, 지방 및 정부와의 공동 자금 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파트너십 개발 지원이 있다.

프랑스 내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ADEME의 지원 프로그램은 프랑스 내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EU가 정하는 중소기업은 직원 수는 250명 미만이어야 하고 매출액은 5천만 유로 미만이거나 연간 총 결산액이 4,300만 유로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은 ADEME나 지방정부에 에너지절약, 환경오염 절감 등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중소기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자사의 현황 진단,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 전문인력 알선(비용 지원), 파트너 물색, 기존의 (지방)정부지원 프로그램 동참 혜택 부여 등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받아 경쟁력 및 수익성이 높은 지속가능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한 그린화에 따른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등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 최고의 기술 및 정보조사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직원 훈련도 받을 수 있다.

성공사례 – 산업 폐기물을 에너지로 가치화

프랑스에서는 연간 8억 5천 만 톤에 달하는 산업 폐기물 가운데 상당부분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산업 폐기물 처리가 기업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하였다. 이에 ADEME는 최근 2년 동안 '폐기물 10% 감소'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334개 기업 중 100개 기업을 선발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용역비를 지원,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아래 2개 기업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벗어나 폐기물을 에너지로 가치화하는 데에 성공하여 주목받는 기업이다.

Tannerie Nouvelle Pechdo는 5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소가죽 무두질 관련 기업이다. 이 회사는 무두질 과정에서 발생하는 육 지방 및 살코기 폐기물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화하여 경비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개발을 목적으로 미디-피레네 지방정부와 ADEME가 지원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그램(PRELUDE: Programme Regional de Lutte contre l'effet de serre et pour le Developpement Durable)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Tannerie Nouvelle Pechdo는 전문 시장조사업체에 무두질 폐기물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프랑스 석유연구소(IFP: Institut Français du Petrole)의 지원으로 폐기물의 에너지 가치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무두질 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2단계 공정을 개발하였고, 77만 5천 유로를 투자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액의 40%에 해당하는 31만 유로를 보조 받았다. 이 투자 덕택에 1,700톤의 폐기물로 연 540MWh의 열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었고, 하루 110 m^3 온수 생산에 성공하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폐기물 처리 및 소각 비용으로 15만 유로를 절약하고, 가스 비용으로 1만 3천 유로를 절약한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분출량 및 악취를 감소하는 친환경 성과도 거두었다.

Tannerie Nouvelle Pechdo 관계자는 전문가가 폐기물 처리 문제를 잘 파악하여 폐기물을 줄일 뿐 아니라 에너지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오게 해주었다고 한다. 4년 반 동안 투자비를 완전히 빼낸 후부터는 연간 10만 유로 이상의 순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기업 이미지를 되찾았으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도 호응할 수 있어 떳떳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회사의 성공 사례는 프랑스 내 도살장, 무두질 공장, 폐기물 처리장에서 연간 22만 톤의 피와 14만 톤의 생물 폐기물(반죽 상태)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etaldyne international France는 고무사용이 필수적인 경차 엔진용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문업체이다. 이 회사는 연간 1,130톤에 달하는 금속, 고무, 판지 폐기물 처리 방법을 모색하던 중 ADEME의 '폐기물 10% 감소' 캠페인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뿐 아니라 고무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회사는 2만 1,378 유로의 투자비용 중 1만 2,750 유로를 전문가 자문 용역비로 ADEME에서 지원받았다. 프로그램 참여 결과 1년 후에는 연간 직원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4.45톤에서 4.06톤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기업활동이 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은 8% 감소하게 되었으며, 고무원료 비용 등 연간 4만 3,500 유로를 절약하게 되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무 폐기물을 감소한 것이 주효하여 소액의 투자(약 60% 지원)비용을 단기간에 빼낼 수 있었는데, 특히 전문가의 자문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린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관리 및 환경기관이 중심 축이 되어 지방정부, 금융회사, 산업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기업의 그린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린화 추진에 따르는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이 앞장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린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의 용역비용이나 고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문가 및 용역회사가 간접 지원을 받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R&D 투자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중소기업의 그린화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친환경 상품 연구개발 및 생산 기술 발달로 수출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에너지 절약 및 폐기물의 가치화로 국가의 원유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생산장비 산업 육성 효과까지 얻고 있다.